

감자·고구마·수수에 FTA 직불금 첫 지급

전남도, 8월 24일까지 접수... 32억 소요 예상

전남도는 25일 “올해 감자, 고구마, 수수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요건이 충족돼 직불금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은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

별법’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피해 품목 재배농가는 25일부터 8월24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반드시 신청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로, 감자, 수수는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14일) 이전부터, 고구마는 한-아세안 FTA 발효(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농가여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농협 등의 거래영수증, 이장의 생산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단가(ha당)는 감자 131만5000원, 수수는 14만4000원, 고구마는 8000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지급 절차는 8월24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조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 12월까지 지급된다.

전남도 내 감자 재배면적은 전국의 10%, 고구마는 21% 수준으로 피해보전직불금으로 32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수요집회 참석자들이 “할머니 사랑합니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132차 정기수요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김복동 할머니에게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연협뉴스

기초연금 대상자 4만명 10만원 이하 받는다

복지부,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때문... 해당자 1% 예상

기초연금이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되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이상 노인의 대부분은 10만~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초연금 대상자 중 약 1%, 4만명 정도의 기초연금액은 10만원에 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감액 규정 때문이다.

2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의 월 급여액에도 감액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며 “정확한 소득 조사가 끝나봐야겠지만, 기초노령연금 사례로 미뤄 1% 안팎의

대상자가 1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04만명 가운데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5만6000명(1.4%) 정도가 책정된 연금액(노인 단독가구 최고액 9만9900원)보다 실제로는 깎인 연금을 받고 있다.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규모가 약 446만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율을 비슷하게 1%로만 잡아도 약 4만~5만명의 연금액은 기초연금 계산식상 최소값인 1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감액 규정은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

해 불가피하다는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1인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7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될 전망이다. 소득 86만원인 사람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는 반면 불과 2만원 소득이 많은 경우(88만원) 한 푼도 받지 못해 오히려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소득 우열이 뒤집어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구간별로 ▲월소득 79만원초과~81만원이하 8만원 ▲81만원초과~83만원이하 6만원(노인 단독가구) ▲83만원초과~85만원이하 4만원 ▲85만원초과~87만원이하 2만원 등으로 기초연금액 상한선이 마련된다.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 수준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새 정부비서관에 신동철

박근혜 대통령은 공석인 정부수석실 정부비서관에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을 임명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신 비서관이 어제 정부비서관에 임명된 것으로 안다. 신 비서관이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 국민소통비서관은 현재 찾고 있다”고 전했다.

신 비서관은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현 여의도연구원) 부소장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캠프 여론조사단장을 맡아 박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으며, 현 정부 출범 때부터 국민소통비서관을 맡아왔다. /박지경기자 jkpark@



아시아나, 90일간 샌프란시스코 못 다닐수도

美 NTSB “작년 사고 원인 조종사 과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책임으로 최대 90일의 노선 운항 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4일(한국시간) 사고원인을 최종 정리하는 회의에서 조종사의 과실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 각각 최대 60일과 30일간 운항을 정지당할 수 있다. 이를 합산하면 운항정지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망자와 중상자 수에 따라 운항정지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사고 사망자는 3명이며 중상자는 49명이다.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간주하므로 사망자는 27명 인 셈이다.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운항정지 60일에 해당한다.

또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라는 조항에 따라 추가로 운항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다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운항정지 일수는 감경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하루 1차례 운항하는 샌프란시스

코 노선에서 3개월 가까이 운항을 못하면 직접적 손실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안전규정 위반으로 사이판 노선에서 7일간 운항정지 처분받았는데 30억~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샌프란시스코 사고를 놓고 운항정지가 아니라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액수가 너무 적어 가능성은 낮다. 과징금 액수는 인명피해(10억원)와 항공기 등 재산피해(5억원)를 합해 최대 15억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조사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최종보고서가 다음달 말께 나오면 내부 검토 결과를 NTSB 보고서를 토대로 곧바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과거 인명피해가 컸던 광 추락사고 때 대한항공이 3개월 운항 정지당했는데 광 사고와 샌프란시스코 사고는 차이가 있다”면서 선처를 기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조사 결과 항공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제재 대상이 된다’는 운수권 배분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국제선 노선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연합뉴스

‘관심·위험군’ 장병 5만명

軍 지난해 ‘사고예측’ 검사

내달까지 관심병사 재분류

군 당국이 지난해 전군을 대상으로 ‘사고예측’ 관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5만명에 가까운 장병이 ‘관심’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25일 “작년 전군을 대상으로 1차, 2차에 걸쳐 사고예측 관별 검사를 실시했다”면서 “이 검사에서 2만명에 가까운 장병이 ‘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고예측 관별 검사에서 ‘관심’을 요구하는 장병도 3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휘관이 보살피야 할 ‘관심병사’ 규모가 예상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이 검사 결과대로라면 병영 내에서 군기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장병의 규모는 5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런 수치는 현재 전군 병력이 62만여명 수준을 감안할 때 전체 병력의 8% 수준이다. 관심과 위험군에 속하는 장병은 병영 내에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휘관이 특별히 관심을 쏟아야 하는 등 지휘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관심과 위험군에 속하는 장병 규모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자 오는 7월까지 이뤄지는 전군 특별정밀진단에서 관심병사를 재분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B급, C급으로 분류된 병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A급으로 상향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만든 인성검사 평가서를 이용해 식별한 관심병사를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C급(기본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군은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에 대해서도 군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병영에서 조기 퇴출하도록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부대 특별정밀진단에서는 왕따 등 집단 따돌림과 병영 부조리 등을 집중적으로 식별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예술꿈나무들의 큰잔치

59 호남예술제

최고상 발표회 & 시상식

일시 2014. 6. 28(토) 오후1시 **장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

예술꿈나무들의 발표회! (무료 관람)

광주일보사와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제59회 호남예술제'가 뜨거운 성원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각 부문 개인과 단체 최고상 수상자들을 초청, 작품 발표회를 갖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며 문화예술의 터전을 가꿔줄 미래의 스타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관람은 무료입니다.

호남예술제 출신 선배들의 축하 공연!

호남예술제를 통해 발굴되고 육성되었던 선배들의 축하 공연이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미래의 예술꿈나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선배들의 축하공연을 함께 구성하여 풍성하고 유익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주최 **광주일보사 · (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문의 (062)220-0541